

선거구 경쟁도와 전략적 분할투표: 17대와 18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사례로*

한 상 익 | 경남대학교

듀베르제가 제안한 심리적 효과에 기반한 전략 투표는 일반적으로 선거구 경쟁도에 대한 투표자의 인식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론적으로, 경쟁적인 선거구의 투표자는 일방적인 승부가 예상되는 선거구에 비하여 보다 전략적으로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

2표병립제에서 전략적 행동은 주로 정당투표와 후보투표의 전략적 분할 투표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한국의 17대와 18대 총선을 사례로 정당득표와 후보득표의 비율을 분석하여 선거구 경쟁도 변화에 따른 전략적 분할투표의 변화를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각각의 선거 지형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선거구 경쟁도에 따라 대정당과 군소정당 모두 후보-정당득표 비율이 유의미하게 변화하여 전략적 분할투표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전략적 분할투표, 선거구 경쟁도, 후보-정당 득표 비율, 심리적 효과

I. 서론

단순다수대표제가 양당 체제를 촉진한다는 듀베르제 법칙(Duverger 1954)은 득표의 의석전환 규칙에서 제3당이 과소 대표되는 기계적 효과와 함께 자신의 투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결과, 즉 투표 효용이 0이 되는 것을 회피하는 투표자들의 심리적 효과에 근거하고 있다. 이 중 후자의 효과는 왜 투표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가 아닌, 승리 가능성 있는 후보에게 전략적으로 투표하는가를 설명하는 이론적 연구들과 이 전략 투표를 경험적으로 증명하거나 투표 행동의 이유를 설명하려는 시도들의 전제가 되었다.

*줄고를 꼼꼼히 읽으시고 매우 유익한 비평과 함께 필자의 실수를 예리하게 지적해 주신 익명의 세 분 심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표적인 이론적 연구들은 주로 투표자의 효용극대화 관점에서 투표 모델을 구성한 연구들이다(Riker 1982; Black 1978; Fey 1997). 나아가 전략적 투표행동이 단순다수대표제 뿐만 아니라, 사표가 있는 모든 선거 제도에 적용될 수 있다는, 이른바 M+1 규칙을 제안한 콕스의 연구(Cox 1997)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경험적인 연구들은 주로 듀베르제가 적시한 단순다수대표제에서 나타나는 전략 투표에 집중되어 있는데, 특정 선거를 사례로 하여 전략 투표의 수준을 증명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Cain 1978; Alvarez et al. 2000; 2006; Blais et al. 2001; Fisher and Curtice 2006; Justice and Lanoue 2005; Fieldhouse et al. 2006; 안순철 1996; 경제희·김재한 1999; 조성대 2000; 최정욱 2006; 지병근 2008). 단순다수대표제가 아닌 결선투표제를 대상으로 경험적 증명을 시도한 연구(Abramson et al. 2004)도 1인 1표제 선거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 연구들은 설문조사 결과 또는 선거 결과의 집합자료를 분석하거나 양자를 모두 활용하는 방법을 통하여, 투표자가 심리적 효과 때문에 최선호 후보가 아닌 당선 가능한 후보에게 투표하는 전략 투표 경향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인 1표제와는 달리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와 지역대표 선출을 위한 후보투표를 분리하는 혼합선거제도인 2표병립제에서는, 심리적 효과가 주로 분할 투표로 나타난다(Moser and Scheiner 2005; Kawai and Watanabe 2012; 박찬욱 2004; 강원택 2004; 2010; 이현우 2005; 안순철·가상준 2006; 이내영 2009; 어수영 2011; 김형철 2012). 즉, 가장 선호하는 정당의 후보자 또는 가장 선호하는 후보자가 승리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같은 정당에 정당투표와 후보투표를 던지는 일관투표(straight voting) 경향을 보이는 데 비하여,¹⁾ 후보자의 승리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정당투표와 후보투표가 각기 다른 정당으로 분할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Moser and Scheiner 2005, 58; 조진만·최준영 2006, 85). 이때 정당투표는 상당 수준 진실한 투표(Sincere Voting)²⁾로 간주되며 전략적 행동은 주로 후보투표에서 나타난다. 예컨대 뉴질랜드 사례의 연구에서는 투표자의 약 89%

1) 17대 총선의 경우 제1당인 열린우리당 투표자의 87.8%, 제2당인 한나라당 투표자의 91.1%가 일관투표를 한 반면 제3당인 민주노동당의 일관투표율은 29.2%에 지나지 않는다(박찬욱 2004, 57).

2) Sincere voting은 직설적 투표(경제희·김재한 1999), 똑바른 투표, 순수 투표(안순철 1996; 안순철·가상준 2006), 진실한 투표(지병근 2008; 조성대 2000), 진지한 투표(김용호 2009) 등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투표자의 진실한 선호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며, 앞으로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가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정당에 정당투표를 하였지만 후보투표는 그보다 강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투표자 선호가 2개 정당 이상 무차별한 경우나 선거후 설문 응답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왜곡 등을 고려할 때, 이 비율은 정당투표를 진실한 투표로 간주하기에 부족하지 않다고 본다(Karp et al. 2002, 5). 선거결과의 집합자료를 통하여 2표병립제의 전략적 분할투표를 분석하는 연구들은 정당투표와 후보투표의 이런 특징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Kohno 1997; Schoen 1999; Bawn 1999; Karp et al. 2002; Burden 2009; 한상익 2013).

단순다수대표제든 2표병립제든, 전략적 투표 행동을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심리적 효과가 득표 효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선거의 경쟁 수준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라는 필터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이다. 즉, 최선호 후보가 차선호 후보에 비해 단순히 득표력이 뒤진다는 것을 넘어, 양자의 당선가능성의 차이에 대한 유권자의 비교 판단이 필요하다(Justice and Lanoue 2005, 119-120; Myatt 2007, 255). 예컨대 한 투표자가 3위 정당의 후보를 가장 선호하고 3위 후보와 차선호 후보인 1위나 2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비슷하다면, 이 투표자는 전략적 행동을 할 심리적 효과가 없거나 매우 낮을 것이다. 콕스(Cox 1997, 85)가 2위와 3위 후보의 득표율 비(sf-ratio)를 측정하여, 그 비가 1에 가까울수록 전략적 투표가 줄어들며 0에 가까울수록 전략적 경향이 강한 선거구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이런 추론에 근거한다. 그러나 선거구 경쟁도에 따른 심리적 효과에서 최선호와 차선호 후보 간의 격차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당선을 경쟁하는 1위와 2위 후보 간의 경쟁도라는 점에서 sf ratio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2위와 3위 후보 간 득표율의 격차가 크다고 할지라도 1위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나가고 있어 2위와 3위 후보 모두 당선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3위 후보의 지지자들이 2위 후보에게 전략 투표를 할 이유는 작아질 것이다. 이런 면에서 sf ratio는 1위와 2위 후보의 경쟁도라는 변수를 고려할 때 좀 더 적실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하겠다.

이론적으로 볼 때 자신의 투표가 승부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야 투표자는 자신의 선호 순서와 다른 투표를 할 유인이 생긴다. 만약 자신의 투표와 상관없이 당선자가 거의 결정된 일방적 선거라면 차선호 후보가 1위이든 2위이든 차선호 후보에게 투표할 유인은 매우 작아진다(Ordeshook and Zeng 1997, 16; Justice and Lanoue 2005, 123; 이 내영 2009, 47; 김용호 2009). 이런 이유로 일부 경험적인 연구에서는 아예 당선 경쟁도(closeness)에 따라 선거구를 구분하여 경쟁 선거구만을 대상으로 전략적 투표의 수준을 측정하거나(Cain 1978, 644, 한상익 2013, 243-244) 경쟁도에 대한 투표자의 인식을 변수로 도입하기도 한다(Blais et al. 2001, 346).

이 글의 문제의식은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만약 선거구 경쟁도에 따라 투표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효과가 달라진다면, 2표병립제에서 나타나는 전략적 분할투표의 수준 역시 선거구 경쟁도에 따라 변동할 것이다. 반대로 선거구 경쟁도가 심리적 효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각기 경쟁도가 다른 선거구들이라도 전략적 분할투표의 수준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 문제의식은 듀베르제의 심리적 효과를 전제하는 연구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이를 다루는 연구는 놀랄 만큼 적은 편이다. 해외 연구로는 설문 자료에 근거하여 일방적 선거일 때 진실한 투표가 증대되는 경향이 있음을 제시한 것(Justice and Lanoue 2005)과 군소정당의 정당득표(PV: Party Vote)와 후보자득표(EV: Electorate Vote) 차이가 승리를 경쟁하는 양대 정당의 경쟁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콕스의 연구(Cox 1997) 정도가 있을 뿐이며, 국내 선거를 대상으로 한 연구 중에서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선행연구를 찾기 어렵다. 이는 무엇보다도 선거구별 투표 데이터를 확보하거나 조작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의 선거구에서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의 투표자를 조사하는 것은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다. 집합 자료³⁾를 사용한다면 선거구별 데이터 확보는 용이하지만, 경쟁도에 따라 선거구를 구분할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집합 자료를 통해 개인의 투표 행동을 판단하는 생태적 오류의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역시 용이한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투표의 문제를 선거구 경쟁도에 따라 검토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주제이며 가능한 한계 내에서 이를 시도해 보는 것은 유의미한 일이라 본다.

이 논문은 17대와 18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후보자-정당득표 비율(EP ratio)에 주목하여 선거구 경쟁도에 따른 전략적 분할투표 정도의 차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 선거구에서 당선 경쟁이 치열할수록 전략적 분할투표가 증대된다는 이론적 가설에 대한 통계적 증명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다음 장에서는 2표병립제의 분할투표에 대한 이론을 일별한 후 EP ratio가 전략적 분할투표를 반영하고 있음을 논증할 것이다. 이후 III장에서 집합 자료를 통하여 경쟁도에 따라 선거구들을 구분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에 따라 구분된 선

3) 전략투표와 관련된 연구 방법은 설문조사 또는 집합자료를 단독으로 이용하거나 양자를 모두 활용하는 접근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집합자료를 통한 연구는 표본 추출과 응답자 왜곡으로 인한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실제 결과에서 전략적 투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특히 2표병립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집합자료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접근법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한상익(2013)을 참조하라.

거구의 각 정당 EP ratio에 대한 분산분석을 수행한다. IV장은 결론으로서 이 연구의 함의와 한계를 서술한다.

여기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 자료 요구에 따라 다시 집계한 17대와 18대 총선의 각 선거구별 정당득표와 후보득표 결과 자료이다. 이 자료는 공개된 자료와는 달리 각 선거구별로 후보득표와 정당득표가 집계되어 있어 선거구별 각 정당의 EP ratio를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최근 선거인 19대 총선에서는 당시 주요정당인 민주당과 군소정당인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이 전국적인 선거연합을 형성하여 다수 선거구에서 이 중 1개 정당만이 후보를 공천하였다. 이 때문에 3개 정당 중 2개 정당은 후보득표가 0이 되는 경우가 많아 정당득표와의 비교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사례에서 제외하였다.

II. 전략적 분할투표와 후보자-정당 득표 비율

1. 분할투표 이론과 전략적 분할투표

분할투표는 한 명의 투표자가 2개 이상의 각기 다른 경쟁이 존재하는 선거에서 2개 이상의 정당 또는 정당의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행위(Burden and Helmke 2009, 2) 또는 1인의 투표자가 2개 이상의 유효표를 각각 다른 정당의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행위로 정의할(박천호 2008, 294) 수 있다. 이 분할투표는 두 개의 차원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방향 차원에서는 각기 다른 직위를 동시에 선출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수직적 분할투표와, 같은 직위의 선거를 다른 방법으로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에서 관찰되는 수평적 분할투표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대통령과 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미국 대선의 분할투표가 대표적이고 후자는 지역 대표와 비례 대표를 동시에 선출하는 2표병립제의 분할투표를 주로 가리킨다. 한국은 총선에서는 수평적 분할투표가, 동시지방선거에서는 양자 모두가 나타날 수 있다. 두 번째 차원은 시간의 차원으로 앞의 방향 차원에서 '동시'의 조건을 제외하는 경우이다. 수직적이고 비동시적인 분할투표는 상원의 1/3, 하원 전원 등을 선출하는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2년전과 다른 정당을 선택하는 경우를 가리키며, 수평적이고 비동시적인 분할투표는, 직위는 같지만 각기 임기 개시 시기가 다른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나타난다(Burden and Helmke 2009, 3).

왜 이러한 분할투표가 나타나는가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정책적 견제균형(policy balancing)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이는 수직적 분할투표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주로 활용되는 것으로, 각기 다른 직위에 분할 투표를 함으로써 견제의 효과를 살리고 균형을 맞추려는 선택으로 설명된다. 피오리나(Piorina 1992, 122)는 분점정부를 초래하는 미국 대선의 분할투표를 양당제에서 강력한 지배정당을 방지하는 유권자 행동의 결과로 간주한다. 따라서 급진적 지지자는 일관투표를, 온건한 지지자는 분할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Piorina 1992, 75).⁴⁾ 2표병립제에서도 대정당 간 분할투표는 이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으며(박찬욱 2004, 64), 특히 양당제 국가의 대정당 간 분할투표 설명에 적실성을 가진다. 그러나 다당제 국가, 특히 대정당과 군소정당 간 분할투표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물론 대정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하여 후보투표는 선호하는 대정당 후보에게 투표하지만 정당투표는 군소정당에 주는 경우를 견제균형 분할투표로 상정할 수는 있다(정준표·정영재 2005, 27). 하지만 동기상 이런 투표 행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호 순서에서는 연합보장형과 구분되지 않으며 외면적으로는 사표방지형과 구분되지 않는다.

좀 더 광범위한 차원에서 분할투표를 설명하는 접근법은 듀베르제가 주장한 심리적 효과에 의한 전략투표 행동의 결과로 설명하는 것이다. 2표병립제에서 나타나는 분할투표를 설명하는 연구들은 주로 이 시각을 취하고 있다. 전략적 분할투표라고 할 수 있는 이 접근법은, 군소정당 지지자들이 후보투표에서 사표 방지를 위하여 당선 가능한 대정당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사표방지형 분할투표가 주로 대상이 되지만(Bawn 1999; Karp et al. 2002; Moser and Scheiner 2009), 대정당 지지자들이 연합형성을 위하여 이념적, 정책적으로 근접한 군소정당에게 정당투표를 하는 연합보장형 분할투표까지 포함하기도 한다(Gschwend 2007, 7; 박찬욱 2004). 특히 그쉬벤트(Gschwend 2007, 18-19)는 사표방지형은 양당제를 촉진하지만 연합보장형은 다당제를 유지시켜주는 효과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2표병립제는 후보투표를 통한 양당제 촉진과 정당투표를 통한 다당제 유지의 두 효과를 모두 가진 제도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전략적 분할투표 접근법은 분할투표 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견제균형 접근법보다 널리 받아들여지지만, 대정당 간 또는 군소정당 간의 분

4) 피오리나(1992)는 정책적 견제와 균형을 바라는 유권자의 심리 때문에 양당의 이념적, 정책적 간극이 클수록 분할투표가 더 많이 일어난다고 주장하는데 비해 브루넬과 그로프만(Brunell and Grofman 2009, 63)은 19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집합자료를 분석하면서 오히려 평균적인 차이가 작을수록 분할투표가 늘어난다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할투표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세 번째는 후보자 요인이나 외부적 요인을 강조하는 접근법이다. 사실상 어떤 통일된 접근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상기 두 가지를 제외한 기타 접근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Burden and Helmke 2009, 3). 후보자의 인지도나 명성, 현직 여부 같은 후보자 귀속 특성⁵⁾으로 군소정당 지지자들의 분할투표를 설명하거나(Bawn 1999; Hainmueller and Kern 2008; Burden 2009; Karp 2009; Helmke 2009),⁶⁾ 투표자의 양면성에 주목하기도 한다.⁷⁾ 이외에 대선거구제나 개방형 리스트 같은 제도적 요인 또는 정당체제 및 유권자의 미성숙 같은 특정 국가의 개별적 요인을 제시하기도 하고(Ames et al. 2009, 11-12),⁸⁾ 유권자에게 정당을 중심으로 정보가 전달될 때 보다 후보자 중심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경우 분할투표가 촉진된다는 실험 결과를 토대로 정보 차이를 설명 요인으로 제시하기도 한다(Calvo et al. 2009). 또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저항투표를 분할투표 요인으로 설명하는 것도 세 번째 접근법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강원택 2010; 조진만·최준영 2006, 74).

한국 총선의 분할 투표 역시 앞의 접근법에 따라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컨대 지역 선거에서 승리를 다투는 대정당 간의 분할투표는 견제균형 모델로 설명될 수 있으며, 대정당과 군소정당 간 분할투표는 선호 순서와 어느 쪽이 후보자 투표인가에 따라 사표 방지형이나 연합보장형 분할투표, 저항투표, 후보자 특성에 의한 분할투표로 설명할 수도 있다. 군소정당 간 분할투표는 상기 세 접근법으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선거구에 따라 후보자 특성을 요인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글의 연구 주제는 다양한 분할투표를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듀베르제의 심리적 효과에 의해 정의되는 전략적 분할투표가 선거

-
- 5) 이외에도 후보자와 투표자의 개인적 관계, 투표자의 소속 집단 같은 요인들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변수들은 일반화하기도 어렵고 확인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 6) 당선 가능성이 적은 정당의 후보를 가장 선호하지만,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차선호 후보자에게 투표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이 접근법은 크게 보면 사표방지형 전략적 분할투표에 포함된다. 다만, 전략적 분할투표는 정당 요인을 좀 더 강조하는 데 비해 이 접근법은 후보자 요인을 좀 더 강조한다는 점에서 분리하여 다룰 수 있다.
 - 7) 예컨대 미국에서 가톨릭은 민주당 지지 성향을, 교외 거주자는 공화당 지지 성향을 가진다고 할 때, 교외에 사는 가톨릭 유권자는 그 양면성 때문에 분할투표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Manow 2011).
 - 8) 아메스 외(2009)는 브라질의 분할투표를 분석하면서 지나친 후보와 정당의 난립, 무지로 정당을 구분 못하는 유권자의 존재가 분할투표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의하면 2002년 선거에서 상파울루만 해도 700명 이상의 후보자가 출마했으며, 1999년 선거에서는 국민의 36%만이 여당을 구분할 수 있었다고 한다.

구 경쟁도에 영향을 받는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연구 목적을 위해서는 전략적 분할투표와 비전략적 분할투표를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전략투표를, 가장 선호하는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낮을 때, 자신의 투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승리 가능성 있는 후보들 중 좀 더 선호하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으로 규정할 때(Cox 1997, 71), 개념상 전략적 분할투표는 두 번째 유형에서 사표방지형만을 가리킬 수밖에 없다. 다만 대정당 지지자가 군소정당에 정당투표를 하는 연합보장형은, 외형상 사표방지형과 구분되지 않고 그 효과에서도 차이가 없으며 그 비중도 작기 때문에 전략적 분할투표에 포함시켜도 무방할 것이다.⁹⁾ 따라서 여기서는 전략적 분할투표¹⁰⁾를, 정당투표는 후보가 당선 가능성 없는 군소정당에, 후보투표는 당선 가능성 있는 대정당 후보에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기로 한다.

2. 전략적 분할투표와 후보자-정당 득표 비율

2표병립제에서 정당투표와 후보투표 중 보다 진실한 선호를 반영하는 것은 정당투표이다. 앞에서 언급한 뉴질랜드 사례뿐 아니라 일본의 사례에서도 이런 경향은 확인된다(Burden 2009, 39). 한국에서도 군소정당인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을 분석하였을 때, 정당투표는 진실한 선호를 반영하지만 후보투표는 당선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적 행동의 결과인 경우가 많았다(강원택 2004, 149). 이는 경험적인 측면에서뿐 아니라 이론적으로 볼 때도 당연한 결과이다. 투표자가 전략적 행동을 하는 것은 자신의 투표 효용이 0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이다. 그런데 선호하는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없거나 매우 낮을 때 후보에게 하는 진실한 투표는 투표 효용이 0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정당투표에서는 자신의 선호 정당이 의석을 배분받지 못하는 봉쇄 기준만 넘어선다면 투표 효용은 다른 정당들에 투표하는 것과 같게 된다. 따라서 봉쇄 기준도 넘기 어려운 아주 작은 정당의 지지자들을 제외하고는 군소정당 지지자들이라도 정당투표에 전략적 고려가 들어갈 여지는 매우 적

9) 박찬욱(2004, 65)은 이 두 가지를 전략적 분할투표로 정의하고 나머지를 비전략적 분할투표로 정의하고 있다.

10) 편승투표(band wagon effect voting)를 전략적 투표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 심리적 효과의 결과라는 점에서 동일시하기도 하고(Abramson et al. 2004, 725),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기준으로 분리하기도 하지만(Sher 2011, 4) 이 역시 전략적 투표와 외면적으로 동일하며 개념적으로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기서는 구분하지 않기로 한다.

〈표 1〉 이표병립제에서 정당투표와 후보투표의 유형

구분	대정당 1	대정당 2	군소정당 1	군소정당 2
대정당 1	A	B	C	C
대정당 2	B	A	C	C
군소정당 1	D	D	A	E
군소정당 2	D	D	E	A

(가로축 = 정당투표, 세로축 = 후보투표)

다.

2표병립제의 이런 특성을 이용하여 설문 조사뿐 아니라 선거 결과 집계된 정당득표와 후보득표의 차나 비율을 활용하여 전략적 분할투표를 측정하려는 시도는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 정당투표가 진실한 선호를 반영하고 후보투표가 심리적 효과를 반영한다면 양자의 차는 전략적인 고려의 결과를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선거 결과의 집합자료상에 나타난 정당득표와 후보득표의 차를 전략적 분할투표의 양으로 간주하거나(Karp et al. 2002; Schoen 1999; Bawn 1999, 한상익 2013) 정당득표와 후보득표의 비율을 활용하여(kohno 1997) 분석을 수행한다. 그러나 양자의 득표 결과를 변수로 활용하는 것은 여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분할투표는 대정당들과 군소정당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1〉은 그 경우의 수를 표시한 것이다. 여기서 대정당은 지역구 당선을 경쟁하는 정당이고 군소정당은 당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정당이다.

A유형은 정당투표와 후보투표 모두 하나의 정당에 투표하는 일관투표이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대정당의 경우 일관투표율은 매우 높아 $90\% \pm \alpha$ 에 달한다. 이에 비해 군소정당은 지지자 특성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17대 총선의 민주노동당이나 19대의 통합진보당은 일관투표의 비중이 절반 이하였지만 17대 새천년민주당이나 17대, 19대의 자유선진당은 그 비중이 70% 이상이었다(박찬욱 2004; 조진만·최준영 2006; 김형철 2012). 이런 군소정당 간 차이는 전자의 경우 이념적, 정책적 요인이 선호의 주된 원인이므로 이념적, 정책적 근접성을 가진 대정당이 있는 경우 분할 투표가 활발해지지만, 후자는 선호에 지역적 요인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정당이 이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반영한다(조진만·최준영 2006).

B유형은 대정당 간 분할 투표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견제균형 투표의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이 유형은 개념적으로는 대정당을 당선을 경쟁하는 정당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2개

이상의 정당이 당선을 경쟁하는 경쟁선거구에서만 존재한다. 다만, 한 정당이 일방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선거구에서도 1위 정당을 지지하여 정당 투표를 진실한 투표를 하지만 후보자 투표는 2위 정당의 후보자에게 투표한다면 이는 1위 정당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대로 2위 정당에 정당투표를, 당선이 확실시되는 1위 정당 후보자에게 후보자 투표를 하는 유형은 투표 효용을 높이려는 전략투표로 간주된다. 따라서 일방적인 선거구에서도 견제균형을 위한 분할 투표는 존재한다.

C유형은 결과적 형태에서 전략적 분할투표로 간주된다. 물론 그 동기에 따라 사표방지와 연합보장, 견제균형과 기타 저항투표 등이 섞여 있겠지만, 이 논문의 사례가 되는 한국의 17대와 18대 총선에서는 선거연합이 없었고 의석의 90% 가까이를 두 정당이 점유하는 현실에서 군소정당에 견제를 기대하는 전략적 분할투표가 많을 수는 없다. 실제로 설문조사를 통해 분할투표 종류를 분류한 연구에서도 C유형에서는 사표방지형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박찬욱 2004). 따라서 C유형에서 정당투표와 후보투표의 차이는 전략적 분할투표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D유형은 대정당을 지지하지만 군소정당의 후보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후보자 특성이나 저항투표 등으로 설명될 수는 있지만, 투표 효용을 높이려는 전략적 고려의 결과로 볼 수는 없다. E유형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분할투표이다. 따라서 D와 E 유형의 분할투표는 비합리적, 비전략적 분할투표로 규정할 수 있다.

각 투표 유형이 집합자료상 정당득표와 후보득표에 미치는 이익과 불이익을 분석해 보면, 우선 일관투표인 A유형은 양자가 상호비례적이기 때문에(Moser and Scheiner 2009, 58) 정당 규모에 따른 이익이나 불이익은 없다. 대정당 간 주고받는 B유형은 개별 선거구 편차는 있을지언정 집합자료상 평균적으로는 상호 상쇄될 가능성이 높아 손익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어수영 2011, 26; 박찬욱 2004, 57).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후보투표에서 대정당의 이익과 군소정당의 불이익이 확연히 확인되는 것은 C유형이다. 이론적으로 투표자의 전략적 선택은 항상 제3당에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결정되며(Riker 1982, 764), 경험적 연구에서도 대정당의 이익 수준은 군소정당의 불이익 수준과 유사하게 나타난다(한상익 2013, 246). D유형은 C유형과 상쇄되기 때문에 집합자료상에서는 C유형과의 합이 0이 되는 지점까지는 분할 투표의 수준을 낮추게 되며, 그 이상이라면 결과적으로 전략적 분할투표를 상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이런 사례는 보고된 바 없으며 선행 연구에서도 D유형은 C유형의 약 1/3 수준으로 나타난다(박찬욱 2004, 59). E유형은 당선 가능성 없는 군소정당 간에 표를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나 연구 대상으로

나 의미 없는 분할투표 행동이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보듯이, 집합자료상 정당득표와 후보득표의 조합은 전략적 분할투표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의미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D유형이 가지는 상쇄효과를 감안하면, 정당득표와 후보득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전략적 분할투표는 항상 최소치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정당득표와 후보득표를 조합하여 전략적 분할투표를 분석하는 방법은 2가지이다. 하나는 양자의 차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주로 전략적 분할투표의 양(amount)을 측정하는데 활용되며 집합자료를 활용한 2표병립제의 전략적 분할투표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Bawn 1999; Burden 2009; Karp et al. 2002; Schoen 1999; 한상익 2013). 다른 하나는 이 글에서 EP ratio라고 명명한 후보-정당득표 비율을 통해 전략적 분할투표의 정도(degree)를 살펴보는 것이다. 만약 정당득표와 후보득표가 일치할 경우 EP ratio는 1이 될 것이다. 이 비율이 1보다 크다면 정당득표를 초과하는 후보득표를 얻었음을 의미하며 반대로 1보다 작다면 정당득표에 비해 후보득표에서 불이익을 얻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대정당과 군소정당의 EP ratio가 1에 수렴할수록 전략적 분할투표가 완화된 선거나 선거구가 될 것이며 반대로 대정당과 군소정당의 EP ratio가 양극화될수록 전략적 분할투표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III. 선거구 경쟁도와 전략적 분할투표의 변동

1. 경쟁도에 따른 선거구 분류

일반적으로 선거구 경쟁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상위 두 후보자의 경합도만을 고려할 때는 1위와 2위 후보자의 득표율 또는 득표수 차이를 이용하는 것(황아란 1997; 한정훈·강현구 2009), 3명 이상 후보자의 경합을 고려할 때는 경쟁도 지수나 엔트로피 지수를 측정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윤성호·주만수 2010, 223). 선거구 경쟁도 수준에 따라 제3당 지지자들의 전략적 분할투표 행동이 달라진다는 가설의 전제는 상위 두 대정당의 경쟁도에 있으므로 결국 상위 두 후보자의 득표율 차¹¹⁾를 측정해서 구분해야 한다.

11) 선거구 간 유권자 수가 3배까지 차이가 나는 한국에서 득표수 차는 개별 선거구의 경쟁도를 측

문제는 투표자가 경쟁 또는 비경쟁 선거구로 인식하여 전략적 분할투표 행동이 달라지는 지점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설문조사자료를 사용한다면 경쟁도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조사해서 구분할 수 있지만 집합자료에서 득표율 차는 양적 변수이기 때문에 질적 개념인 경쟁선거구와 비경쟁선거구를 구분하려면 하려면 결국 특정한 지점을 임의로 선정할 수밖에 없다.

선행 연구들은 양자의 득표율 차가 20% 이하이면 경쟁선거구, 그 이상이면 일방우위선거구로 임의로 분류하곤 한다(Justice and Lanoue 2005, 126, 황아란 1998, 167). 이때 20%를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정당 체제가 안정되고 무소속이 드문 서구에서는 큰 무리 없이 받아들여지는 수치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정당체제가 유동적이고 강력한 무소속 후보나 소지역 패권정당의 존재 때문에 20%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편의적이다. 정당득표율 차를 활용하여 통계적으로 동질적인 집단들을 분산 분석으로 추출한 뒤, 득표율 차가 가장 작은 선거구 집단을 경쟁선거구로 분류한 연구도 있는데(한상익 2013), 이 방법은 비교적 안정된 정당득표율을 활용하여 선거구를 분류하였다는 장점은 있으나, 일부 광역 차원의 흐름에서 벗어난 선거구들을 추출해낼 수 없다는 한계가 두드러진다. 아울러 후보 간 차이가 전략적 분할투표의 중요한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연구에서는 집합자료에서 상위 두 후보의 두 가지 데이터, 즉 1위와 2위 후보의 후보 득표차와 정당득표차를 계산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K-평균 군집분석 기법(K-means Cluster Analysis)¹²⁾을 적용하여 선거구를 분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투표자는 현재 경쟁하는 후보의 특성과 역대 선거 결과나 지역적 특성 등에 따라 경쟁도를 인식하는데, 후보득표차는 후보간의 차이를, 정당득표차는 선거구의 특성을 보여주는 변수가 된다. 따라서 정당득표율을 산정할 수 없는 무소속 후보가 1위나 2위인 선거구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비례대표조차 배분받지 못할 정도로 정당득표율이 낮은 정당들, 즉, 17대

정하는 데는 유용할 수 있지만, 선거구들 간 경쟁도를 비교할 때는 활용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18대 총선에서 최다 선거인수 지역인 서울 강남(갑)은 24만3382명, 최소 선거인수 지역인 경북 영천은 8만5811명이었다. 이런 현실에서 1위와 2위 간 득표차가 같다고 해서 경쟁도가 같다고 말할 수는 없다.

- 12) 군집분석은 분석 대상이 되는 개체들을 유사한 성격을 가진 군집으로 묶어내어 분석하는 통계 기법으로 각 군집은 내적으로는 유사하고 외적으로는 이질적이어야 한다. K-평균 군집 분석은 이중 개체가 많은 경우 적용되는 비계층적 군집분석 방법으로서 변수가 2개 이상일 때 사용할 수 있다.

〈표 2〉 경쟁도에 따른 17대와 18대 선거구 분류

구분	17대	18대
경쟁선거구	107	50
우세선거구	86	90
패권선거구	38	33
계	231	173

에 정몽준 혼자만 당선된 국민통합21이나 18대의 진보신당 같은 정당의 후보자가 1위 또는 2위를 기록한 선거구도 EP ratio가 너무 예외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분석대상 선거구는 17대는 231개, 18대는 173개가 된다.

군집은 3개로 분류하였다. 이는 지역주의가 관철되는 선거구가 거의 절반에 이르는 한국 선거 지형 때문이다. 특히 영호남에서는 후보와 정당 양자 모두 1위와 2위의 득표차가 너무 큰 선거구가 많아, 2개의 군집으로 분류하면 군집중심도가 너무 높아져 경쟁선거구의 개체수가 너무 커지고, 양자 득표차가 20% 이상인 선거구들도 경쟁선거구에 포함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에 군집을 더 세분해서 분석하여 양 변수의 군집중심이 10 미만인 경우를 경쟁선거구, 10 이상 20 미만인 선거구는 우세선거구, 30 이상인 선거구는 패권선거구로 분류하였다. 〈표 2〉는 이렇게 분류된 17대와 18대 선거구 수이다.

K-평균 군집분석에 의해 분류된 선거구는 한국의 지역주의 선거 지형을 반영하고 있어 그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다. 17대와 18대 공히 경쟁선거구는 서울과 경기도의 도시지역에 몰려 있다. 다만, 18대에는 17대 총선 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양당이 매우 근접한 차이를 보였던 수도권 중소도시와 충청 대도시 지역들 거의 대다수가 한나라당 우세선거구로 돌아서서 숫자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우세선거구는 서울인 경우 관악구나 서초구 같은 일당 우세지역, 경기의 군 지역과 부산, 천안 같이 지역주의가 있는 대도시 지역이 주로 포함되었다. 17대의 경쟁선거구들이 18대에는 대거 우세선거구로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세선거구 수가 비슷한 것은, 영남의 중·대도시들이 대부분 패권선거구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패권선거구는 대구시와 경북 및 호남 지역에 몰려 있다. 다만, 18대 때 영남은 당시 한나라당 공천에서 배제된 현직들과 친박근혜 계열 후보들이 대거 무소속으로 출마했기 때문에 분석 대상이 되는 패권선거구 수가 오히려 줄어들었다.

〈표 2〉는 양 총선의 선거지형도 반영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양대 정당이 탄핵 이슈를 둘러싸고 거의 전국적으로 박빙의 대결을 펼쳤던 17대 총선에는 경쟁선거구

가 매우 많았고, 새천년민주당과 자유선진당 현역이 대거 출마하여 무소속은 거의 존재감을 얻지 못하였다. 반대로 대선 직후 치러진 18대 총선에서는 대선 패배로 지리멸렬해진 통합민주당이 영남 지역에 거의 후보를 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다른 선거구에서도 일방적으로 밀렸던 반면, 한나라당은 공천 문제로 내부 분열이 일어나 친박연대가 등장하고 무소속들이 대거 출마해서 상당한 득표율을 기록하였었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때문에 17대 총선은 대부분의 선거구가 포함되고 경쟁선거구가 사례의 절반에 육박한 반면 18대는 약 30%의 선거구가 사례에서 제외되었고 경쟁선거구 비율도 사례의 28%에 지나지 않는다.

위와 같이 군집분석으로 선거구를 분류하는 것은 임의적으로 특정 득표율 차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분류하는 것에 비해, 전체 선거구들의 득표 지형을 반영한 상태에서 유사한 득표 배열을 가진 선거구들끼리 묶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유용하다. 아울러 분석의 단위가 각 선거구이기 때문에 광역단위의 분산분석을 통한 분류에 비하여 동일 광역 지역이지만 다른 특징을 가진 선거구들도 추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변수가 2개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대표와 비례대표를 분리하여 선출하는 2표병립제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한계라 하겠다.

2. 선거구 경쟁도와 전략적 분할투표

군소정당 지지자들은 자신의 표가 승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쟁선거구보다 승부가 거의 확정적인 우세선거구나 패권선거구에서는 자신이 선호하는 군소정당 후보에게 일관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 차선호 후보가 1위인 경우 당선에 기여하는 투표 효용이 0에 가까워질 것이고 2위인 경우 투표 효용이 0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일방적인 승부가 예상되는 선거구일수록 대정당과 군소정당 모두 EP ratio가 1에 가까이 수렴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다만 현실에서는 세 가지 요인을 감안해야 한다. 첫째, 전략적 투표 행동은 당선가능성 이외의 요인들, 즉 정당 독주의 견제나 이념적 이유 등 때문에도 일어나며, 이때 전국적 경쟁도에 대한 인식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저스티스와 라노우에는 캐나다 1997년 총선을 분석하면서, 전략적 투표의 유인이 없는 일방적 선거구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3당 지지자들이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라 전략적 투표 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때 이들의 전략적 투표 행동에 전국적 경쟁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Justice and Lanoue 2005, 142). 한국에서도 한나라당의 일방적 승리가 예상되는 영남 지역에서 진보

정당 지지자들이 이념적으로 상대적으로 가까우며 전국적으로 보수정당과 경쟁하는 민주당 계열 정당의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은 전국적 경쟁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하나의 정당이 일방적인 우위를 점하는 선거구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2위로 기대되는 정당은 제3당 지지자들에게 전략적 분할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일방적으로 우세한 선거구일수록 2위 정당의 정당득표 비중이 낮기 때문에 전략적 분할투표의 양이 경쟁선거구에 비해 적거나 비슷해도 EP ratio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EP ratio가 양이 아닌 비율이기 때문에 가지는 한계이다.

둘째, 후보자의 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당은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공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군소정당뿐 아니라 원내 제1당 또는 제2당인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며, 특히 선거 환경이 극히 불리한 정당은 후보가 극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탄핵 역풍이 불었던 17대에서 열린우리당은 243개 전지역에 후보를 출마시켰으나 한나라당은 218개 지역에만 후보를 공천하였으며, 반대로 한나라당 승리 가능성이 높았던 18대에는 한나라당이 245개 전 지역에 공천한 반면 열린우리당의 후신인 통합민주당은 197개 지역구에만 후보를 출마시켰다. 군소정당은 더 심해서, <표 3>에서 보듯이 일방적인 승부가 예상될수록 낮은 득표율로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어려운 군소정당의 후보는 뚜렷하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정당투표를 한 투표자에게 자신이 투표한 정당의 후보가 없다는 것은 기권하든지 다른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권한다면 다른 정당의 EP ratio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제2선호에 따라 후보 투표를 한다면 후보를 낸 다른 정당들의 EP ratio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념적 근접성이 전략적 분할투표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는 한국에서(조진만·최준영 2006; 안순철·가상준 2006; 지병근 2008; 이내영 2009) 특정 정당의 무공천은 이념적 성향이 근접한 다른 정당의 EP ratio를 크게 변동시킬 가능성이 높다.

<표 3> 선거구 경쟁도에 따른 3위 이하 유효 정당 출마 평균 후보 수¹³⁾

구분	경쟁선거구	우세선거구	패권선거구
17대 총선	1.92명	1.45명	1.32명
18대 총선	1.44명	1.00명	0.67명

13) 유효 후보는 당해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획득한 군소정당의 후보를 말한다.

〈표 4〉 선거구 경쟁도에 따른 1위와 2위 정당, 민노당 EP ratio 평균과 표준편차

구분			경쟁선거구	1당 우세선거구	1당 패권선거구
17대	제1당	평균	1.2047	1.1127	1.0382
		표준편차	0.1509	0.1364	0.0997
	제2당	평균	1.0658	1.2431	1.3266
		표준편차	0.1160	0.3966	0.4039
	민노당	평균	0.4498(n=60)	0.5397(n=34)	0.5291(n=22)
		표준편차	0.1256	0.1335	0.1530
18대	제1당	평균	1.6280	1.2710	1.3230
		표준편차	0.2184	0.1729	0.2294
	제2당	평균	1.0694	1.3916	1.5788
		표준편차	0.1463	0.3216	0.7093
	민노당	평균	0.7681(n=28)	1.0666(n=32)	1.1755(n=11)
		표준편차	0.1879	0.3232	0.2670

셋째는 군소정당의 특성이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지역주의를 배경으로 한 정당의 지지자는 선거구 경쟁도를 불문하고 전략투표 성향도 작으며 변화도 거의 없거나 미약하다(강원택 2004; 박찬욱 2004; 이현우 2005; 김형철 2012; 한상익 2013). 따라서 선거구 경쟁도에 따른 군소정당의 EP ratio 변화를 검토하려면 지역주의 배경이 없는 정당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의 17대와 18대 총선에서는 민주노동당만이 이에 부합한다(강원택 2004, 146). 그러나 민주노동당 후보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출마자가 전체 선거구의 절반 이하이기 때문에 각 선거구 경쟁도별 사례 수가 매우 적어 이례적인 2~3개의 선거구들¹⁴⁾의 영향이 매우 커지는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 이를 교정하기 위하여 여기서는 정규 분포를 가정하고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이례적인 선거구들을 제외하였다.

이상과 같은 요인을 고려할때, 선거구 경쟁도에 따른 심리적 효과의 변화가 있다면 투표자 인식과 유효 후보자 수에 큰 영향을 받는 제2당은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승리한 제1당과 민주노동당은 선거구 경쟁도에 따른 EP ratio가 이론적 추론에 부합하는 흐름을 보여야 한다. 〈표 4〉는 제1당과 제2당, 민주노동당(민노당)의 EP ratio의 평균과 표준편차이다.

〈표 4〉는 제1당과 군소정당인 민주노동당의 EP ratio가 이론적 추론에 부합하고 있음은

14) 예컨대 민주노동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출마하여 3위를 한 경우나 민주통합당 후보가 출마하지 않아 3위가 된 지역은 EP ratio가 평균의 3배 이상이다.

보여준다. 제1당은 당선을 다투는 경쟁선거구에서는 정당득표에 비해 후보득표에서 더 큰 이득을 얻고 있지만, 일방적인 승부가 예상될수록 전략적 분할투표에 의한 이득이 줄어들고 있다. 반면 군소정당인 민주노동당은 경쟁선거구와 비경쟁선거구에서 EP ratio가 확연히 구분된다. 이는 경쟁선거구일수록 군소정당 지지자들의 전략적 분할투표가 늘어나고 비경쟁선거구일수록 진실한 투표가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론적 추론과 다른 것은 제2당 EP ratio의 흐름이다. 이론적인 예측과 다른 이유는 앞에서 제시했던 전국적 경쟁도 인식에 의한 분할투표 성향과 선거구 유효 후보 수의 변화 때문으로 보인다. <표 3>에서 보듯이 17대와 18대 선거 모두 일방 우위 선거구 특성이 강할수록 투표 대상이 될 후보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세선거구나 패권선거구에서 제1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투표자들은 일관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 경우 제2선후에 의한 투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는데, 한국 총선에서 제2선후에 의한 표의 이동이 두드러지는 정당은 비교적 진보적 이념을 가진 정당들로 분류되는 열린우리당/민주통합당과 민주노동당이며(박찬욱 2004; 어수영 2011) 실제로 이들 정당 간 EP ratio도 이를 반영한다. 분석 대상 선거구 중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선거구의 열린우리당 EP ratio 평균은 1.23인데 비하여 민주노동당이 출마한 선거구의 그것은 평균 1.07에 불과했다. 반대로 18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영남지역 선거구의 민주노동당 EP ratio는 다른 지역보다 매우 높아 평균 1.99에 달하였다.¹⁵⁾ 이에 여기서는 유효정당수가 제2당의 EP ratio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만을 지적해 둘 수밖에 없다.

선거구 경쟁도에 따라 전략적 분할투표의 정도가 변동한다는 가설을 검증하려면, 선거구 경쟁도에 따른 EP ratio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표 5>와 <표 6>은 제1당과 민주노동당의 선거구 경쟁도에 따른 EP ratio 분산분석 결과를 다중 비교한 결과이다.

제1당 EP ratio의 다중비교 결과는 선거구 경쟁도에 따른 전략적 분할투표의 평균 차이

15) 3위 이하 유효정당수를 변수에 포함시킨다면 제2당의 EP ratio의 흐름도 이론적 추론에 따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단순계산으로 경쟁선거구의 유효정당수 평균을 1로 하여 우세선거구와 패권선거구의 유효정당수 비율을 산출해 적용하면, 제2당의 비경쟁선거구 EP ratio도 17대는 0.9 수준, 18대는 0.9~0.7로 감소한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계산은 주요 정당과 군소정당 간 득표력의 차이, 군소정당 지지자들의 전략적 분할투표 성향 등을 반영하지 못할 뿐더러 유효정당수가 0인 선거구는 포함시킬 방법이 없다.

〈표 5〉 선거구 경쟁도별 제1당 EP ratio의 다중비교 결과

구 분	선거구 경쟁도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17대	경쟁선거구-우세선거구	+0.09	0.020	0.00*
	경쟁선거구-패권선거구	+0.17	0.023	0.00*
	우세선거구-패권선거구	+0.07	0.026	0.02*
18대	경쟁선거구-우세선거구	+0.35	0.035	0.00*
	경쟁선거구-패권선거구	+0.30	0.044	0.00*
	우세선거구-패권선거구	-0.05	0.040	0.40

주: Tukey 방식. * p<0.05

〈표 6〉 선거구 경쟁도별 민주노동당 EP ratio의 다중비교 결과

구 분	선거구 경쟁도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17대	경쟁선거구-우세선거구	-0.09	0.028	0.00*
	경쟁선거구-패권선거구	-0.08	0.033	0.04*
	우세선거구-패권선거구	+0.01	0.036	0.95
18대	경쟁선거구-우세선거구	-0.28	0.069	0.00*
	경쟁선거구-패권선거구	-0.39	0.095	0.00*
	우세선거구-패권선거구	-0.11	0.093	0.48

주: Tukey 방식. * p<0.05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준다. 17대 총선은 각 경쟁도 군집별로 EP ratio의 평균 차이가 서로 구분되었다. 18대는 경쟁선거구와 비경쟁선거구인 우세 선거구, 패권선거구의 EP ratio가 체계적인 차이가 있었지만, 비경쟁선거구인 우세선거구와 패권선거구는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선거의 특성에 따른 차이로 해석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양대 정당이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치열하게 경쟁하였던 17대 총선에서는, 비록 경쟁선거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우세선거구에서도 승부의 향방이 보다 유동적으로 인식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일방적 우세 속에 치러진 18대 총선에서는 우세선거구에서도 이미 일방적 승부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패권선거구와 차이가 별로 없었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전국적 경쟁도에 대한 인식이 각 선거구 경쟁도의 인식과 마찬가지로 전략적 분할투표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의 EP ratio에 대한 선거구 경쟁도별 다중비교 결과 역시 군소정당의 측면에서도 경쟁선거구와 비경쟁선거구 간 전략적 분할투표에 체계적인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

다. 17대 총선과 18대 총선 모두 경쟁선거구와 비경쟁선거구에 포함되는 우세선거구와 패권선거구 사이의 EP ratio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다만 우세선거구와 패권선거구 간에는 17대 총선과 18대 총선 모두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큰 진보정당 지지자들의 특성(박찬욱 2004, 52; Kohno 1997, 436) 때문에, 이들이 선거구의 경쟁도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

사표가 존재하는 선거제도에서 투표자들의 심리적 효과에 의한 전략적 투표 행동은 정치학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이며, 수십 년간 수많은 연구자들이 이론적으로 그 메커니즘을 구명하고 분석모형을 구성하여 설문조사 자료와 집합자료를 분석해 전략적 투표 행동의 존재와 수준을 증명해 왔다. 그리고 심리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 선거구 경쟁도는 투표 행동의 변화를 초래하는 객관적 조건으로 전략적 투표 행동 분석에서 하나의 전제로서 위상을 가진다. 그런 면에서 집합자료 차원에서라도 선거구 경쟁도와 전략적 분할투표의 관계를 구명하려는 시도는 충분히 유의미하다고 본다.

전략적 분할투표를 후보득표와 정당득표의 집합자료를 통하여 분석하려는 시도는 기왕에도 있었지만, 이를 후보-정당득표 비율로 구성하고 선거구 경쟁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한 것은 새로운 시도이다. 이를 통하여 의 17대와 18대 총선을 분석한 결과 각 선거구에서 승리한 정당과 군소정당에서 선거구 경쟁도별 차이가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물론 모든 정당을 이론적 추론에 따라 검토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었지만, 선거구 경쟁도에 따른 전략적 투표의 연구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조건임을 감안할 때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하나의 가능한 연구 방법을 제시한 것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정당득표와 후보득표 간 차이를 투표자의 전략투표 결과로 추론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태적 추론의 한계를 내재하고 있으나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양 득표의 차를 전략투표로 간주하는 국내의 선행 연구들이 이미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전략적 분할투표를 추적한 국내 연구들을 풍부하게 참조하고 있고 그 추론 결과도 선행 연구들의 분석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연구에 난점이 많은 이 주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시도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지역주의의 약

화와 정치적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에서 투표 행동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집합자료를 통한 투표 행동 연구 방법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좀 더 정교한 방법을 활용한 후속 연구들을 기대한다.

투고일 2014년 4월 13일

심사일 2014년 5월 7일

게재확정일 2014년 5월 21일

참고문헌

- 강원택. 2004. “제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지지에 대한 분석.” 『한국정치연구』 13집 3호, 143-165.
- _____. 2010. “2010 지방선거에서의 분할투표: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26권 4호, 1-26.
- 경제희·김재한. 1999.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전략투표자.” 『한국과 국제정치』 30집, 65-95
- 김용호. 2009. “유권자 선거판세 인식과 전략투표 행동에 대한 매체 이용 효과의 탐색적 연구” 『언론과학연구』 9권 2호, 243-280.
- 김형철. 2012. “혼합형 다수대표제의 정치적 결과에 대한 분석: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선거연구』 2권 2호, 51-86.
- 박찬욱. 2004. “제17대 총선에서 2표병립제와 유권자의 분할투표: 선거제도의 미시적 효과 분석.” 『한국정치연구』 13집 2호, 39-85.
- 박천호. 2008. “미국 정당의 양극화 현상과 분할투표 결정요인의 변동에 관한 연구: 피오리나의 정책균형 분할투표 이론을 중심으로.” 『미국학』 31집 2호, 293-326.
- 안순철·가상준. 2006. “17대 국회의원선거의 민주노동당 투표자에 대한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5권 2호, 37-57.
- 안순철. 1996. “한국 유권자의 전략투표 행태.” 『한국정치학회보』 30집 2호, 165-186.
- 윤성호·주만수. 2010. “투표참여의 경제학: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결정요인 분석.” 『경제학연구』 58집 2호, 221-254.
- 이내영. 2009. “한국 유권자의 이념 성향의 변화와 이념 투표.” 『평화연구』 17집 2호, 42-72
- 이현우. 2005. “정당투표제 도입의 정치적 효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행 연구자료.
- 조성대. 2000.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제3당 후보 지지자들의 전략투표에 관한 연구.” 『한국정

- 치학회보』34집 2호, 301-321.
- 지병근. 2008. “한국에서의 전략투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약소 정당 지지자들의 투표 행태.” 『국제정치논총』48집 2호, 151-171.
- 어수영. 2011. “혼합선거제도 도입에 따른 정치적 효과 분석.” 『선거연구』1권 1호, 7-36.
- 정준표·정영재. 2005.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 제6대~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4권 2호, 5-44.
- 조진만·최준영. 2006. “1인 2표병립제의 도입과 유권자의 투표행태: 일관투표와 분할투표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정치학회보』40집 1호, 71-90.
- 최정욱. 2006. “전략투표율의 변화, 개인의 선호도 변화 그리고 군소후보의 쇠퇴.” 『국제정치논총』46집 4호, 223-240.
- 한상익. 2013. “2표병립제에서 군소정당 지지자들의 전략투표.” 『한국정치학회보』47집 5호, 235-254.
- 한정훈·강현구. 2009.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과 정치 엘리트의 전략적 행위가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사례 분석.” 『한국정치연구』18집 1호, 51-82.
- 황아란. 1997. “선거구 특성이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치학회보』30집 4호, 285-298.
- _____. 1998. “국회의원 선거의 당선경쟁과 선거구 요인: 제15대 총선 당선자의 선거경쟁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32집 3호, 163-186.
- Abramson Paul R., John H. Aldrich, Matthew Diamond, Abraham Diskin, Renan Revine, and Thomas J. Scotto. 2004. “Strategic Abandonment or Sincerely Second Best?: The 1999 Israeli Prime Ministerial Election.” *The Journal of Politics* 66. No.3, 706-728.
- Ames, Barry, Andy Baker, and Lucio R. Renno. 2009. “Split-ticket voting as the rule: Voters and permanent divided government in Brazil.” *Electoral Studies* 28, 8-20.
- Alvarez R. Michael, Frederick J. Boehmke, and Jonathan Nagler. 2006. “Strategic voting in British Election.” *Electoral Studies* 25, 1-19.
- Alvarez, R. Michael and Jonathan Nagler. 2000. “A New Approach for Modeling Strategic Voting in Multiparty Election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0. No.1, 57-75.
- Black, Jerome H. 1978. “The Multicandidate Calculus of Voting: Application to Canadian Federal Election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2. No.3, 509-635.
- Blais, André, Richard Nadeau, Elisabeth Gidengil, and Neil Nevitte. 2001. “Measuring Strategic Voting in Multiparty Plurality Elections.” *Electoral Studies* 20, 343-352.
- Bawn, K. 1999. “Voter responses to electoral complexity: Ticket splitting, rational voters, and representation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9, 487-505.

- Brunell, Thomas L. and Bernard Grofman. 2009. "Testing sincere versus strategic split-ticket voting at the aggregate level: Evidence from split house-president outcomes, 1900-2004." *Electoral Studies* 28, 62-69.
- Burden, Barry C. 2009. "'Candidate-Driven Ticket Splitting in the 2000 Japanese Elections.'" *Electoral Studies* 28, 33-40.
- Burden, Barry C. and Gretchen Helmke. 2009. "The Comparative Study of Split-Ticket Voting." *Electoral Studies* 28, 1-7.
- Calvo, Ernesto, Marcelo Escolar and Julia Pomares. 2009. "Ballot design and split ticket voting in multiparty systems: Experimental evidence on information effects and vote choice." *Electoral Studies* 28, 218-231.
- Cain, Bruce E. 1978. "Strategic Voting in Britai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2. No. 3, 639-655.
- Cox, Gary W. 1997. *Making Votes count: Strategic Coordination in the World's Electoral System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uverger, Maurice. 1954. *Political Parties: Their Organization and Activity in the Modern State*. London: Methuen & Co. LTD.
- Fey, Mark. 1997. "Stability and Coordination in Duverger's Law: A Formal Model of Preelection Polls and Strategic Voting." *American Political Review* 91. No.1, 135-147.
- Fieldhouse, Ed, Andrew Pickles, Nick Shryane, Jerry Johnson, and Kingsley Purdam. 2006. "Modeling Multiparty elections, preference classes and strategic voting." *CCSR Working Paper* (The University of Manchester) 2006-01, 1-45.
- Fisher, Stephen and John Curtice. 2006. "Tactical Unwind?: Changes in Party Preference Structure and Tactical Voting from 2001 to 2005." *Journal of Elections, Public Opinion, and Parties* 16. No.1, 55-76.
- Gschwend, Thomas. 2007. "Ticket-splitting and strategic voting under mixed electoral rules: Evidence from German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6, 1-23.
- Hainmueller, Jens and Holger Lutz Kern. 2008. "Incumbency as a source of spillover effects in mixed electoral systems: Evidence from a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Electoral Studies* 27, 213-227.
- Helmke, Gretchen. 2009. "Ticket splitting as electoral insurance: The Mexico 2000 elections." *Electoral Studies* 28, 70-78.
- Justice J. W. and David J. Lanoue. 2005. "Strategic and Sincere Voting in a One-sided Elections: The Canadian Federal Election of 1997." *Social Science Quarterly* 86. No.1, 119-146.

- Karp, Jeffrey A., Jack Vowles, Susan A. Banducci, and Todd Donovan. 2002. "Strategic Voting, Party Activity, and Candidate Effect: Testing explanations for Split Voting in New Zealand's New Mixed System." *Electoral Studies* 21, 1-22.
- Karp, Jeffrey A. 2009. "Candidate effects and spill-over in mixed systems: Evidence from New Zealand." *Electoral Studies* 28, 41-50.
- Kawai, Kei and Yasutora Watanabe. 2012. "Inferring Strategic Voting." Unpublished Manuscript. Northwestern University.
- Kohno, Masaru. 1997. "Voter Turnout and Strategic Ticket-Splitting under Japan's New Electoral Rules." *Asian Survey* 37. No.5, 429-440.
- Manow, Philip. 2011. "The Cube Rule in a Mixed Electoral System: Disproportionality in German Bundestag Elections." *West European Politics* 34. No.4, 773-794.
- Moser, Robert G. and Ehan Scheiner. 2009. "Strategic voting in established and new democracies: Ticket splitting in mixed-member electoral systems." *Electoral Studies* 28, 51-61.
- _____. 2005. "Strategic Ticket Splitting and the Personal vote in Mixed-Member Electoral System."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30. No.2, 259-276.
- Myatt, David P. 2007. "On the Theory of Strategic Voting."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74. No.1, 255-281.
- Piorina, Morris P. 1992. *Divided Government*. New York: Macmillan.
- Ordeshook, Peter C. and Langche Zeng. 1997. "Rational Voters and Strategic Voting: Evidence from 1968, 1980, and 1992 Elections."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9. No.2, 167-187.
- Riker, Willam H. 1982. "The Two-party System and Duverger's Law: An Essay on the History of Political Science." *The American Political Review* 76. No.4, 753-766.
- Schoen, Harald. 1999. "Split-ticket Voting in German Federal Elections, 1953-90: An Example of Sophisticated Balloting?" *Electoral Studies* 18, 473-496.
- Sher, Chien-Yuan. 2011. "Distinguishing Strategic Voting from Band Wagon Effects: How did Voter's Subjective Expectations Affect Results." *Department of Economics of Boston University Working Paper*. 2011 August. Boston: Boston University.

ABSTRACT

District Competitiveness and Strategic Ticket-splitting: A Case Study of the 17th and 18th General Elections in Korea

Sangik Han | Kyungnam University

Strategic voting based on psychological effects, as proposed by Duverger, is believed to be affected by the voter's understanding of the constituency's competitiveness. From a theoretical perspective, voters who consider the race competitive tend to vote more strategically than who expect a one-sided game.

In a two vote mixed member system, the strategic behavior is mainly ticket-splitting between party and electorate votes. This study searches the changes in degree of strategic ticket splitting with district competitiveness, analyzing the ratio between party and electorate vote for the case of the 17th and 18th National Assembly elections of Korea. On that analysis, although little differences were founded in each election, meaningful change of party-electorate vote ratio of both major party and minor party was seen depending on district competitiveness.

Keywords: strategic ticket-splitting, district competitiveness, party-electorate vote ratio, psychological effects